

## 1930년대 초 고유섭의 '현대 신흥건축' 인식

Ko Yu-seop's Perception of 'Contemporary Emerging Architecture'  
in the Early 1930s

김 현 섭\*

Kim, Hyon-Sob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Ko Yu-seop's perception of 'contemporary emerging architecture' in the West by investigating into his two early 1930s' articles: 'On Emerging Arts, Particularly the Cutting-edge Architecture' (Jan. 1931) and 'Russian Architecture' (Dec. 1932).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it is argued that he attempted to systematically describe his contemporary architecture, from the concept of 'modern' to representative architectural theories, and his suggested reference list is considered meaningful since it illustrates one aspect of how modern architectural knowledge was transferred to Korea at that time. As his limitation, however, it should be pointed out that a significant part of his writing was a verbatim translation of the Japanese critic Takao Itagaki's *New Art Acquisition* (1930). Nevertheless, the two articles give us a valuable understanding related to his socialist tendency, his preferred commune-type city-cum-architecture that reflects the ideology, etc. Hereafter, this understanding needs to be further discussed in both study areas of art history and architectural history in Korea.

주제어 : 고유섭, 서양, 현대 신흥건축, 인식,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Keywords : Ko Yu-seop, Western (European), Contemporary Emerging Architecture, Perception, 1930s, Korea, Modernism

## 1. 서론

우현(又玄) 고유섭(高裕燮, 1905~44)은 한국 미술사학의 태두이자 한국미의 창시자로 잘 알려져 있다. 예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미술사와 탐과 연구, 대중적으로도 익숙한 '구수한 큰 맛'이나 '무기교의 기교'와 같은 한국미의 규정 등 그의 공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건축계에서는 『조선건축미술사 초고』를 통해 중요성이 더한다. 즉, 그는 한국 전통의 미술과 건축 분야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라 하겠다.<sup>1)</sup>

그런데 흥미롭게도 고유섭은 1930년대 초, 당시 진행 중이던 서양의 현대건축, 그의 말로 '현대 신흥건축'에 관한 논고도 두 편 발표한 바 있다. 1931년 1월 24~28

일 『東亞日報』에 채자운(蔡子雲)이라는 필명으로 4회 연재한 「新興藝術, 特히 尖端을 가는 建築에 對하여」(이하 「신흥예술 첨단건축」), 그리고 2년쯤 뒤인 1932년 12월 『新興』이라는 잡지에 출판한 짤막한 평문 「露西亞의 建築」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크게 논의되지 않은 듯한데,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적 이유는, 건축을 포함한 전통미술 분야에 주요 업적을 남긴 고유섭이 다소 거리가 있는 서양의 현대건축을 논한 것 자체가 이채를 띠는 사실에 있다. 그의 1930년 경성제대 학사 논문 「예술적 활동의 본질과 의의」가 19세기 독일의 미술사가 콘라트 피들러(Konrad Fiedler, 1841~95)의 예술론을 다룬 것이라 하더라도 그렇다. 한편, 고유섭의 두 글이 나온 때가 1930년대 초라는 것도 무척 중요한 이유다. 이 시점의 중요성은 다시 둘로 나뉘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세계적 건축동향과 연관된다. 주지하듯 이때는 1920년대 유

\* Corresponding Author: archistory@korea.ac.kr

1) 고유섭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2장에서 다룬다.

립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됐던 서양의 ‘근대건축운동(Modern Movement in Architecture)’이<sup>2)</sup> 절정을 지나던 시점이었다. 특히 1932년이 되면 당대 건축의 모더니즘이 ‘국제(주의) 양식’이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양식화’ 수순을 밟게 된다.<sup>3)</sup> 이렇게 ‘침단을 가는 건축’의 상황을 고유섭이 과연 어떻게 인식했는지는 흥미로운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 시점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한국 건축계의 내적 진전과 연관된다. 특히 고유섭의 현대건축 첫 논고가 발표된 1931년 1월은 아직 한국 건축계에서 서양 근대건축운동에 관한 글이 나오기 전이었다고 판단된다.<sup>4)</sup> 그간 일제강점기의 조선에는 서양건축의 발전상이 간접적으로 유입되긴 했다. 1930년을 전후해 경성에 근대주의적 성격을 띤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하기도 했고,<sup>5)</sup> 1922년 일본인 건축가들을 중심으로 창설된 조선건축회의 기관지 『朝鮮と建築』이 유럽과 미국 건축의 모더니즘을 종종 소개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해당 기사의 필자는 모두 일본인이었다.<sup>6)</sup> 즉, 고유섭의 글은 한국인이 한국어로 서양건축의 최신 동향을 소개한 가장 이른 문헌으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사실 고유섭의 현대건축 논고에 대한 조명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우동선의 동경대학 박사논문(1999) 고유섭 챗터가 이를 일부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sup>7)</sup> 그러나 이 연구는 ‘답과건축 연구’, ‘한국건축통사 저술’, ‘유럽 근대건축 소개’라는 세 가지 관점의 서술 속에 그

2) 본고에서는 ‘모던(modern)’을 현재적 관점에서 이미 역사화된 시기를 지칭할 때는 ‘근대’로, 당시의 상황에서 진행 중인 시점을 지칭할 때는 ‘현대’로 옮기고자 하나 온전히 일관적이지는 않다. 연구 대상인 당대의 저자들 자체가 둘을 혼용해 썼기 때문이다.

3) 1932년 헨리 러셀 히치콕과 필립 존슨이 뉴욕 MoMA(Museum of Modern Art)의 <Modern Architecture: International Exhibition>을 기해 출판한 『The International Style: Architecture since 1922』(New York: Norton, 1932)가 그 과정을 대표한다.

4)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박동진이 고유섭보다 2개월 뒤 같은 신문에 16회 연재한 「우리 住宅에 對하여」의 「現代建築의 趨勢」 챗터(1931.3.17~19)가 첫 사례로 보인다.

5) 그 예로 총독부 상품진열관(총독부, 1929), 메이지제과 경성매점(모리야마, 1930), 종로백화점 ‘동아’(박길룡, 1931), 오원석병원(유상하, 1932) 등을 들 수 있는데, 일부는 과거의 흔적을 여전히 담기도 한다. 해당 시점의 『朝鮮と建築』을 보시오.

6) 윤인석은 이 잡지에 게재된 서양 모더니즘 관련 기사 목록을 정리하고 간략히 분석한 바 있다. 尹仁石, 「韓國における近代建築の受容及び發展過程に關する研究」, 東京大學 博士論文, 1990, 116-121쪽.

7) 禹東善, 「第6章 高裕燮の建築研究と韓國文化の特徵への探求」, 「韓國の近代における建築觀の變遷に關する研究」, 東京大學 博士論文, 1999, 266-311쪽. 이 챗터는 일부 가감을 거쳐 다음으로 출판됐다. 우동선, 「미술사가 고유섭의 건축연구와 역사관」, 『Visual』(2002),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연구소, 86-111쪽. 사실 우동선에 앞서 최진희의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고유섭의 한국건축미학에 관한 연구」(1992)가 그의 사회경제학적 관점을 보이기 위해 「신흥예술 침단건축」을 소개하기도 했으나 각주(73쪽)에서 간략히 다룬 정도였다.

의 현대건축론을 충분히 탐구할 수는 없었다. 그밖에는 고유섭의 현대건축 논고를 다룬 연구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2010~13년 열화당에서 ‘우현 고유섭 전집’을 10권으로 완간하고 각 권 머리에 해제가 붙여질 때 “현대건축을 전망하는 수준 높은 글”이라는 등으로 잠깐 언급된 정도다.<sup>8)</sup>

이에 본고는 1930년대 초 고유섭의 「신흥예술 침단건축」과 「로시아의 건축」을 고찰하여 당대 진행 중이던 서양의 현대건축을 그가 어떻게 인식했는지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자 한다. 이는 그동안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고유섭의 초기 관심 영역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그리고 일제강점기 서양 현대건축을 막 수용하기 시작하던 시점의 한국이 그와 관련된 어떤 지적 논의의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숙고케 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을 것이다.

## 2. 고유섭(1905~44)의 유산과 현재적 평가

고유섭의 1930년대 초 서양 현대건축 논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학문적 업적과 유산을 현재적 관점에서 개괄할 필요가 있다. 을사늑약이 있던 1905년 출생한 고유섭은 보성고보 시절(1920~25)부터 조선미술사 공부에 소망을 갖기 시작했다고 전한다.<sup>9)</sup> 경성제대에서는 법문학부 철학과에 입학해 미학 및 미술사학을 전공했고, 전술했듯 1930년 졸업 시에는 19세기 독일의 예술론을 논문 주제로 했다. 곧이어 출판한 「미학의 사적 개관」(1930.7)이 고대 그리스로부터 당대까지의 서구 미학을 정리한 것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듬해 「금강미륵반가상의 고찰」(1931.1)과 「조선탑과 개설」(1931.12)을 출판하고, 「고구려의 미술」(1932.5)과 「조선 고미술에 관하여」(1932.5)를 연달아 발표함으로써 조선미술의 연구에 점점 몰입하기 시작한다. 졸업논문을 지도했던 우에노 나오테루(上野直昭, 1882~1973) 교수의 경성제대 미학연구실 조수로 근무

8) 이강근이 『조선건축미술사 초고』(6권, 2010)의 해제 「조선의 건축」에서 발견한 ‘조선의 마음」(10-20쪽)에서 두 글에 대해 위와 같이 짧게 상찬했고, 이인범은 두 글이 속한 『미학과 미술평론』(8권, 2013)의 해제 「고유섭의 학문적 위치, 그리고 그의 미학」(10-28쪽)에서 두 세 문단을 할애하며 현대건축에 대한 고유섭의 입장을 간략히 소개했다. 전집 10권은 다음과 같다: 『조선미술사 상-총론편』(1권), 『조선미술사 하-각론편』(2권), 『조선탑과의 연구 상-총론편』(3권), 『조선탑과의 연구 하-각론편』(4권), 『고려청자』(5권), 『조선건축미술사 초고』(6권), 『송도의 고적』(7권), 『미학과 미술평론』(8권), 『수상·기행·일기·시』(9권), 『조선금석학 초고』(10권). 이하 ‘전집 n권’으로 표기.

9) 전집 10권의 연보 참조, 186-214쪽[192쪽].

하던 때인데,<sup>10)</sup> 1933년 개성부립박물관 관장으로 취임하면서는 보다 본격적으로 조선미술사를 연구해 각종의 글을 남겼다. 단행본은 『朝鮮의靑瓷』(1939)만이 생존 시 일본에서 출간됐고, 나머지는 사후에 황수영 등 제자들이 정리하고 엮어 출간하게 된다. 1964년 『한국건축미술사 초고』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조선건축미술사 초고』도 1930년대 집필했으나 미완의 유고였던 것이다.<sup>11)</sup>

고유섭의 학문적 성과는 크게 미술사학적 측면과 미학적 측면으로 나뉘어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sup>12)</sup> 전자는 그가 근대적 의미에서 한국 미술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하나의 관점을 수립하려 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특히 그는 1937년의 한 글에서 조선미술사를 “형(공간적)으로 중(시간적)으로” 체계화해 삼국시대에 상징주의, 신라통일시대에 고전주의, 고려시대에 낭만주의를 대입하며, 조선시대를 퇴조기로 이해할 수 있다는 관점을 선보였다. 그리고 빈 학파의 ‘예술의욕’ 개념과 빌플린의 ‘양식’ 개념을 적용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힌다.<sup>13)</sup> 한편, 미학적 측면에서의 성과는 그가 한국인의 미의식을 규명하려 노력했다는 사실에 있다. 그는 1940년대에 들어서며 ‘무기교의 기교’, ‘구수한 큰 맛’, ‘무관심성’, ‘민예적인 것’ 등으로 한국미의 특질을 표현하며<sup>14)</sup> 후대의 이해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는 한때 거부했던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 1889~1961)가 언급되고 그 영향이 교차되는데,<sup>15)</sup> 이와 별개로 권영필(1992)은 이때의 그에게서 칸트, 빙켈만, 에카르트 등의 미학을 읽고, 그가 “당시 학문의 세계조류와 동일 위상에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sup>16)</sup>

10) 우에노를 비롯해 경성제대에서 고유섭에게 지적 영향을 미친 교수들과 그 교육배경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시오. 김영애, 「고유섭의 생애와 학문세계」, 『미술사학연구』 190-191호 (1991), 130-131쪽; 김문환, 「한국근대미술학의 전사」, 『한국학연구』 4호 (1991), 341-382쪽; 김영나, 「한국미술사의 태두 고유섭: 그의 역할과 위치」, 『미술사학연구』 16호 (2002), 503-517쪽.

11) 『한국건축미술사 초고』는 고고미술동인회에 의해 등사본[油印本]으로 출간됐고, 황수영이 발문을 썼다. 1999년에는 대원사가 이 등사본의 복각본을 냈는데(서문 김동현), 2010년에 열화당이 이를 『조선건축미술사 초고』라는 제목 하에 전집 6권으로 출간했다. 주8 참조.

12) 김영나, 앞의 글.

13) “잡다한 미술품을 형(공간적)으로 중(시간적)으로 계열과 체차를 찾아 세우고, 그곳에서 시대정신의 이해와 시대문화에 대한 어떠한 체관을 얻고자 한다. 즉 체계와 역사를 혼용시켜 한 개의 관을 수립코자 한다.” 고유섭, 「고대미술 연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1937), 전집 8권 수록. 1935년경 집필로 추정되는(김영애, 1991) 「학난」에서도 연구방법론으로서 빌플린의 ‘근본개념’, 리글의 ‘예술의욕’, 프리체의 역사적·사회적 입장 등이 거론된다. 전집 10권 수록.

14) 고유섭, 「조선미술의 특색과 그 전승문제」(1941), 전집 1권 수록.

15) 앞의 글.

16) 권영필, 「우현 고유섭의 미학」, 『미술사학연구』 196호(1992), 75-83쪽.

이 같은 학문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몇몇 한계점이 지적되곤 한다. 앞선 서술에서도 이미 일부가 암시됐듯 신라통일시대를 우리 예술의 절정기로 보고 조선시대를 퇴락한 시기로 본 것이 세키노 타다시(關野貞, 1868~1935) 등 일제 관학자들의 전형적 식민사관과 일치한다는 점, 야나기의 민예론에 내재한 ‘비애의 미’가 고유섭에게도 ‘비애의 예술’, ‘애통의 곡조’, ‘체관적 진회’ 같은 말로 나타난다는 점 등이 예다.<sup>17)</sup> 일찌감치 문명대(1977)는 고유섭이 벗어날 수 없었던 식민사관의 문제, 전 시대 우리 미술의 특질을 일원론적으로만 본 문제 등을 비판했었는데,<sup>18)</sup> 이후 제기된 비판들도 유사한 입장으로 수렴됐다. 김영나(2002)는 한국적 미의식과 관련해 이제는 “민족의 단일한 정체성 찾기”와 같은 고유섭의 패러다임을 넘어 역동적이고 혼성적인 다양성의 시대에 맞는 입장을 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sup>19)</sup>

고유섭에 대한 현재의 비판적 평가는 미술사학계의 연구에 근거하지만 건축사학계도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그에 대한 건축사학계의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진했다고 하겠는데,<sup>20)</sup> 여하튼 이는 결국 전통건축의 각론적인 측면과 미학적인 측면으로 모아지는 형국이다. 후자는 전술했던 고유섭의 한국미를 한국건축의 특징으로 대입하게 된 사실에서 중요하다. 해방 후 최초의 한국건축 통사였던 윤장섭의 『한국건축사』(1973)는 한국 건축미의 특징으로 ‘단아한 아름다움’과 ‘순박한 큰 맛’, ‘자연에 순응하는 무기교’ 등을 거론하는 한편으로, ‘적조미’가 충분히 고양되지 못하면 ‘애조’로 흐른다는 결점 또한 지적했다. 고유섭의 어법을 고스란히 가져온 것에 다름 아니다.<sup>21)</sup> 이 책이 이후의 한국

17) 「신라와 고려의 예술문화 비교서론」(1939), 「조선미술문화의 몇 날 성격」(1940) 및 「조선미술의 특색과 그 전승문제」(1941), 전집 1권 수록.

18) 특히 그는 1930년대 전반의 ‘사회경제사적 사관’이 1930년대 후반부터 ‘정신사적 사관’으로 변화되며 그 한계가 부각되는 점을 조명했다. 문명대, 「우현 고유섭의 미술사학」, 『미술과 생활』(1977.7), 78-87쪽 및 「1930년대의 미술학 진흥운동」, 『민족문화연구』 12호(1977.12), 147-168쪽.

19) 김영나, 앞의 글.

20) 이에 대한 논의는 본고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그 배경에는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첫째는 고유섭의 『조선건축미술사 초고』가 ‘미술품으로만의 건축’으로 대상을 한정했다는 점이고(따라서 주택 등 여러 건축 유형이 배제됐다), 둘째는 조선건축을 중국건축의 퇴화된 유형으로 간주했다는 점이다. 이런 고유섭의 입장은 그에 대한 건축사학계의 논의와 평가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고, 여전히 논쟁적이라 판단된다. 『조선건축미술사 초고』를 둘러싼 평가(신영훈, 김동욱 등의 견해와 그에 대한 반론)를 다음 글이 일부 보였지만, 앞으로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이강근, 「우현 고유섭의 ‘조선미술사초고’에 대한 연구」, 『미술사학연구』 249호 (2006), 207-235쪽.

전통건축 이해에 미친 지대한 영향력을 생각하면 고유섭의 미의식이 우리에게 이미 상당 부분 내면화했다고 하겠는데, 앞으로 더 넓고 깊은 고찰로 그의 유산을 비판적으로 계승해야 할 것이다. 그의 현대건축 인식에 대한 연구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3. 1930년대 초 고유섭의 현대건축 논고 2제

고유섭의 첫 현대건축 논고인 「신흥예술 첨단건축」이 출판된 1931년 1월은 전술했듯 서양의 근대건축운동이 절정에 이른 때였다. 20대 중반의 청년이었던 고유섭으로서는 경성제대 졸업 후 아직 1년이 채 되지 못한 시점으로, 우에노 교수의 미학연구실에 근무하며 「미학의 사적 개관」에 이어 「금강미륵반가상의 고찰」을 출판한 직후다. 일찌감치 ‘조선미술사’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하나 서구 미학에 대한 학습을 바탕으로 예술 전반에 왕성한 흥미와 섭취 욕구를 표출하던 시기라 하겠다. 당대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최신의 건축경향에 대해서도 그랬다. 「신흥예술 첨단건축」 및 「로서아의 건축」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번 장에서는 두 글이 실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구성과 순서에 따라 살펴본다.

3-1. 「新興藝術, 特히 尖端을 가는 建築에 對하야」 (1931.1)

고유섭이 『동아일보』에 나흘간(24, 25, 27, 28일) 연재한 이 글은 모두 12장으로 구성된다. 9~11장 이외에는 각 장이 제목 없이 숫자만으로 나뉘었는데, 1회에 속한 1~6장을 서론으로, 마지막 4회의 후반부인 12장을 결론으로 볼 수 있다. 본론인 7~11장은 내용상 7장(2회)과 8~11장(3회, 4회 전반부)의 두 부분으로 구분되며, 각각은 현대건축의 배경적 요인으로서의 ‘교호계수와의 관계’ 및 ‘현대건축의 이론’을 논한다. 이 같은 구성을 염두에 두고 글을 고찰하고자 한다.

표 1. 「신흥예술 첨단건축」, 『동아일보』의 구성

회차	날짜	장	내용상 구성	
1	1931.1.24	1~6	서론	배경, 목적, 참고서
2	1931.1.25	7	본론①	교호계수와의 관계
3	1931.1.27	8~10	본론②	현대건축의 이론 3제
4	1931.1.28	11		
		12	결론	신흥건축의 미래

21) 윤장섭, 『한국건축사』, 서울, 동명사, 1973, 26-27쪽. 윤장섭에게 이어진 고유섭의 개념에 대해서는 최진희(1992), 우동선(1999), 이강근(2006) 등이 각자의 논점에 따라 크고 작게 다뤘다.



그림 1. 「尖端을 가는 藝術樣式」, 『東亞日報』 (1930.9.3): 리처드 노이트라의 ‘럿쉬 씨티’ 소개



그림 2. 蔡子雲 (고유섭의 필명), 「新興藝術, 特히 尖端을 가는 建築에 對하야 (1)」, 『東亞日報』 (1931.1.24)

(1) 서론 (1~6장): 여섯 장으로 나뉜 1회차 글에서 고유섭은 글을 쓰게 된 배경과 의도, 첨단 신흥예술의 종류와 당대 상황에 대한 본인의 인식, 글의 목적과 참고문헌 등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서론으로서는 다소 길지만 글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가 글을 쓰게 된 직접적 계기는 일전에 『동아일보』에 소개된 「尖端을 가는 藝術」이라는 제하의 사진과 약설이며, 이 주제에 대해 “자신의 복습을 위하여 약고(略稿)를 기초(起草)”한다는 의도였다. 이 신문은 1930년 9월 여섯 차례에 걸쳐 그 기사를 내보냈었는데(원 제목은 「尖端을 가는 藝術樣式」, 2~7일), 각각은 당대 서양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의 조각, 사진, 영화, 실내장식 등을 다뤘다. 그리고 건축과 관련해서는 리처드 노이트라의 ‘럿쉬 씨티’가 연재 2회차에 소개됐다.<sup>22)</sup> 신문지상에 출판된 이 구상안의 스케치는 직선으로 뻗어나가는 입체적 교통로 양측으로 현대적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는 형국을 보여주는데, 당대 모더니스트들의 미래주의적 도시계획안의

22) 오스트리아 출신의 미국 건축가 리처드 노이트라(Richard Neutra, 1892~1970)는 1920년대 후반 ‘Rush City Reformed’라는 도시계획안을 구상했다. 이에 대한 논의로는 다음을 보시오. Thomas S. Hines, *Richard Neutra and the Search for Modern Architectur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4, pp. 79-85.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고유섭은 이 같은 현대건축의 최신 아이디어에 고무된 듯하며, 그 발전상을 정리해보기 위해 글을 썼던 것이다. 그는 “침단을 간다”는 표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침단 예술을 세 종류로 구분한다. 첫째가 르코르뷔지에, 그로피우스, 멘델존, 힐버자이머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기계적 공업적 건축’이고, 둘째가 푸도프킨, 베르토프 등을 중심으로 하는 몽타주 및 영화안(映畫眼, Kinoki), 성화안(聲畫眼, Radioki)이며, 셋째가 초현실주의, 신즉물주의, 신현실주의의 미술과 문예 등이다. 여기서 우리는 고유섭이 당대 예술의 최신 경향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 글의 주제는 물론 첫 카테고리인 ‘기계적 공업적 건축’에 있다. 여기까지가 서론 전반부(1~3장)의 내용이다.

후반부에서는 ‘현대’의 개념 및 당시 사회상과 예술적 경향을 소개하는데, 고유섭의 사회주의적 입장을 보여준다. 그는 불리계(弗理契), 즉 러시아 학자 블라디미르 프리체(Vladimir M. Friche, 1870~1929)의 『예술사회학』을 따라<sup>23)</sup> 현대를 역사상 전례 없던 ‘공업자본주의의 시대’로 규정했다. 그리고 19세기 중엽 이래 과학문명의 진보가 불러온 두 사회계급의 분열을 지적하는데, 하나가 ‘과잉잉산(過餘剩産)의 계급’이고, (소중산계급은 몰락했으며) 다른 하나가 무산계급이다. 각각 ‘퇴폐적 계급’과 ‘건설적 계급’으로서 ‘아메리카주의’와 ‘소련주의’의 문명 개념에 상응하며, 전자는 ‘찰나적·경감적·분열적 문명’으로서 ‘형식과 외식(外飾)의 미를 추구하고, 후자는 ‘타당적·이지적·종합적 문명’으로서 ‘내용과 합목적’의 미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런 구도 속에 그는 ‘현대 신흥건축’을 ‘아메리카주의’와 ‘소련주의’ 사이에 위치시키며, 그것이 공업자본주의에 부합하면서도 “신흥계급의 경제정책에 투여”될 수 있는 “행운(?)을 띠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는 그러한 “현대건축의 이론을 이해”하는 것을 글의 목적으로 제시하는데, 마지막으로 본인이 도움받은 ‘참고서’를 소개함으로써 지식의 출처를 알게 해준다. 출판된 그대로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sup>24)</sup>

23) 주24의 ⑦ 참조. 원서 정보는 다음과 같다. Vladimir M. Friche, *Sotsiologiya iskusstva*, Moskva, Gos. izd-vo, 1926.

24) 진집 6권이 이 글을 수록하며 참고문헌의 누락된 정보를 넣어 정리했다. 그 일부를 보완하고(단, ⑥에 한해 확인 못함), 지식의 생산과 유통의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단행본 출판일까지 넣어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新興藝術』(雜誌), 東京, 藝文書院; ② 『思想』(雜誌), 東京, 岩波書店, 1930.4; ③ 板垣鷹穂, 『新しき藝術の獲得』, 東京, 天人社, 1930.5; ④ 板垣鷹穂, 『機械と藝術との交流』, 東京, 岩波書店, 1929.12; ⑤ 板垣鷹穂, 『國民文化繁榮期の歐洲畫界』, 東京, 藝文書院, 1929.5; ⑥ 『藝術と藝術家』(雜誌), 1930.9; ⑦ ヴラヂーミ

- 一, 雜誌『新興藝術』
- 一, 雜誌『思想』今年 四月號
- 一, 板垣著『新藝術の獲得』天人社版
- 一, 同人『機械와 藝術과의 交流』岩波版
- 一, 同人『國民文化繁榮期の 歐洲畫界』藝文書院版
- 一, 雜誌『藝術과藝術家』一九三〇年 九月號
- 一, 弗理契『藝術社會學』

(2) 본론① (7장): 고유섭은 ‘침단을 가는 건축’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교호계수(交互係數)와의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며, 네 가지로 논한다. 즉, 이 논고 7장은 자체로 본론이면서도 8~11장에 서술할 ‘현대건축의 이론’을 위한 배경이기도 하다. ‘교호계수’라는 그의 표현은 다소 모호하지만, 현대건축 이면에서 그 현상을 추동하는 이념적·기술적 요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는 ‘정신사적 입장’에서의 ‘합리주의’다. 과거를 모방한 지난 세기의 ‘소극적 역사주의’에 항거한 이지주의와 신흥정신이 합리주의에 입각해 ‘적극적 건설’을 실천한다는 것이다. 고유섭은 기선, 비행기, 자동차의 예로 표방된 르코르뷔지에의 기능주의 및 “본신(本身)의 필연적 요구로부터” 양식이 결정되는 공장건축을 합리주의의 결과로 서술했다. 둘째는 물질적·경제적 입장에서의 ‘자본주의’인데, “자본주의 팽창기의 특유 현상”이 현대건축에 뚜렷하다고 말한다. 철골건축의 모태가 된 19세기 후반의 ‘근업박람회’에 이어, 현대에는 미국의 명물 ‘마천루’가 자본주의와 건축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는 것이다. 셋째는 자본주의의 문화사적 환경을 주도하는 ‘기계문명’이다. 건축가들은 “기계 공업작품의 형태를 섭취”해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그것이 ‘교시’하는 ‘새로운 건축양식’을 추구한다. 15세기의 알베르티가 로마의 폐허에 고무됐듯, 현대의 르코르뷔지에에는 대양의 “기선 형태에 감격”한다고 적는다. 넷째는 기계문명이 수반하는 ‘양식상의 혁명’인데, ‘구성기술’과 ‘건축재료’의 진보로 인함이다. 전자는 철골구조법과 철근콘크리트(즉 철근콘크리트) 응용법으로, 후자는 철, 혼석회, 유리 등으로 대표된다. 타틀린의 ‘제3인터내셔널 기념탑’, [미스 반 데어] 로에의 철골-유리 고층건축안, 프레시네의 비행기납치 등 예로 들고 있다.

(3) 본론② (8~11장): 7장이 네 가지 교호계수를 논했지만 ‘기계문명’이야말로 전체의 중추였다고 하겠는데, 8장이 이를 확인해준다. “[기계문명의] 지도정신이 건축이론과 실제에”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르코르

ル・フリーチェ (昇曙夢 譯), 『藝術社會學』, 東京, 新潮社, 1930.4.

뷔지에, 그로피우스, 힐버자이머의 이론을 “전술한 4개의 교호계수와 같이 『새로운 藝術의 獲得』에 준거해 서술”하겠다고 밝힌다. 결국 본론 전체의 골자는 이 참고서, 즉 이타가키 다카오(板垣鷹穂, 1894~1966)의 『新しき藝術の獲得』(1930)에 크게 근거한 것이라 하겠다.<sup>25)</sup>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하도록 하고 그의 글을 따라가자.

9장 ‘르·코르뷔지에의 건축이론’은 한 단락의 인용구로 시작한다. 요약하면, 건축가와 달리 “기계기사들은 계산을 기초로 하여 기하학적 형태를 이용”함으로써 “위대한 예술의 길을 간다”는 내용이다. 인용 출처는 없으나 『건축을 향하여』(1923)의 대표적 논점인 ‘엔지니어의 미학’과 ‘볼륨’의 ‘형태’에 관한 문구다.<sup>26)</sup> 그리고는 그의 주택의 단순·명쾌함과 ‘연활한 벽’과 밝은 창을 “집은 살기 위한 기계다”라는 표어와 연계하며 (코르뷔지에에 대한 이타가키의 비판적 태도를 암시하면서도) 그를 당대 건축계의 지도자로 칭송하길 거부하지 않는다. 또한 그가 설계한 모스크바의 소비조합본부를, 전통에서 탈피해 ‘인체의 생리적 조건’에 따라 냉난방장치를 적용한 ‘최신 과학의 성과’로 소개했다.<sup>27)</sup> 10장 ‘그로피우스의 국제건축이론’은 현대건축이 “건축의 통일화, 단일화”를 의미하기에 ‘국제적 건축’으로의 귀결이 필연임을 말한다. 즉, 현대의 건축은 건축가의 개인성보다 ‘통일적 세계상’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의 인용문으로 장을 맺는데, 『국제건축』(1925)의 핵심 문구다. “건축은 항상 민족적이오, 또 개인적이다. 그러나 세계의 동심원 - 개인, 민족, 인류 - 중에 최후의, 그리하고 최대의 원이 동시에 다른 두 개를 포함한다.”<sup>28)</sup> 본론의 마지막 11장 ‘힐버스아이머의 도시계획론’은 현대 자본주의의 대표 도시 뉴욕의 교통난을 지적하며, 이런 불합리를 해결할 ‘이상도시 계획론자’로 힐버자이머를 제

시한다. 그의 계획은 ‘기하학적 외형’에만 치중한 코르뷔지에의 ‘공상적 도시안’과 달리 “철저한 합리주의를 표방”했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교통난 해소에 집중해 힐버자이머의 ‘입체적 도시’를 소개했다.<sup>29)</sup> 고층건물의 상하부에 각각 주택과 사무소를 두고 수직적 교통을 마련하는 한편으로, 통근 이외의 교통은 수평적 삼층 도로를 이용해 하는 안이다. 이로써 상부에는 보도, 지상에는 차도를 배치하고, 지하에는 고속의 장거리 교통기관을 놓을 수 있는 것인데, 고유섭은 “이것이 실현되면 공상을 떠난 메트로폴리스가 진실로 될 것”이라 긍정하며 장을 마무리했다.

(4) 결론 (12장): 힐버자이머의 이상도시안에 대한 긍정은 결론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고유섭은 글 전체를 간략히 요약한 뒤, ‘신흥건축’의 미래를 다섯 가지로 나눠 희망적으로 그린다. 신흥건축의 “이상은 담대”하고, “구조는 명료하고 경쾌”하며, “형식은 세력적”이고, “기교는 정확”하고, “재료 취급방법은 가장 합리적”이라라는 것이다. 시대 전체에 대한 개관으로부터 건축의 각론적 부분까지를 아우르고자 하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 3-2. 「露西亞의 建築」(1932.12)

「로시아의 건축」은 1932년 12월 출판됐으니, 「신흥예술 첨단건축」 이후 2년 가까이 뒤에 나온 글이다. 이는 잡지의 한 면에 게재된 짤막한 평문이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고유섭의 생각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글은 5개년계획하의 소련에 건설 기운이 왕성함을 언급하며 시작하는데, 세계적 건축경향에 ‘양극적 대립’이 있음도 지적한다. 「신흥예술 첨단건축」이 말했던 아메리카주의와 소련주의의 대립일 것이다. 그리고는 르코르뷔지에 및 그 부류의 건축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건축은 살기 위한 것이다”라는 ‘평범한 속어’가 전 세계에 일대 충동을 불러일으키며 당대 건축으로 하여금 협로를 방황케 했다는 것이다. 경성에 늘어가는 “감판·선실 같은 건물”도 예로 거론됐다. 그는 이런 건축이 너무

25) 주24의 ③ 참조.

26) 물론 르코르뷔지에(Le Corbusier, 1887~1965)의 『건축을 향하여(Vers une architecture)』가 잡지 『신정신(L'Esprit Nouveau)』(1920~25)에 게재된 글을 바탕으로 함은 주지하는 바다. 고유섭이 근거한 이타가키의 저서도 굳이 인용문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27) 1928년의 공모전 당선으로 르코르뷔지에가 설계한 이 소비조합본부, 즉 센트로소유즈(Centrosyuz) 빌딩은 여러 여건상 공사가 지연돼 1930년대 중반에야 완공을 봤는데, 원래의 아이디어가 모두 실현될 수는 없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시오. Jean-Louis Cohen, *Le Corbusier and the Mystique of the USS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p. 60-105.

28) ‘바우하우스 총서’ 제1권으로 출판된 발터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 1883~1965)의 이 책은 본문 90여 페이지에 걸쳐 신건축 사례의 도판을 실고 있는데, 머리말에서 ‘국제건축’의 개념을 설파한다. Walter Gropius, *Internationale Architektur (Bauhausbücher 1)*, München, Langen, 1925.

29) 이는 루트비히 힐버자이머(Ludwig Hilberseimer, 1885~1967)의 두 저서(*Grosstadtbauten*, 1925; *Grosstadtarchitektur*, 1927)에 출판된 ‘고층도시(Hochhausstadt)’ 계획안(1924)에 대한 설명인데, 일부 디테일에 관한 고유섭의 서술에는 미세한 오해도 발견된다. 한편, 힐버자이머의 ‘고층도시’는 르코르뷔지에의 ‘현대도시(Ville Contemporaine)’(1922)로부터 영향을 반영하면서도 거기 내재한 교통 문제를 비판하며 내용은 대안이었다. Ludwig Hilberseimer, *Grosstadtarchitektur*, Stuttgart, Hoffmann, 1927, pp. 16-21. 다음 책의 서문에서 이 계획안에 대한 당대의 평가를 일부 볼 수 있다. Richard Anderson (ed), *Ludwig Hilberseimer: Metropolisarchitecture and Selected Essays*, New York, GSAPP BOOKS, 2012, pp. 70-77.

‘기본적·개인적·낭만적·분리적’이며, 도시계획 차원의 ‘주택구·정청구·시장구’ 역시 거대한 ‘미궁(迷宮)’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그들은 ‘지상의 공론가’이자 두뇌만으로 현실을 계획하는 ‘언역가’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 예로 서유럽 전반, 특히 “화란을 중심으로 한 분리파”를 든다.<sup>30)</sup>

이런 서유럽의 경향과 대조해 고유섭이 높이 평가한 것이 바로 러시아의 도시계획이다. 그는 이를 “역사적 근거, 사회적 근거, 관념적 근거에서뿐 아니라 확고한 경제적 근거에 입각한 탄력적, 귀납적 계획”이라 여기며, 이것이 “기술과 예술의 통합의 구체적 해결”을 목표로 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는, 소주택을 집합한 공동주택이 식당과 아동유희장 등을 공유한 ‘종합적 복합체’를 이루며, 여기에 사교나 정치회합 등의 공간이 “일종의 구락부의 의미”로 결합되는 한편, 이들이 다시 여타의 건물 및 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더 큰 범위에서 도시와 촌락의 조직으로 나아간다. 그는 5개년계획과 함께 이 같은 과학적 계획안이 성공하면 하나의 ‘예술적 모뉴먼트’가 되리라는 기대를 표출했다. 그리고 이를 ‘릿싯츠키’가 소개한 ‘로시아의 현대 도시계획’이라 적으며 글을 맺는다.

고유섭의 서술은 러시아의 아방가르드 예술가 엘 리시츠키(El Lissitzky, 1890~1941)가 1930년 출판한 『러시아: 소련에서의 건축 재건』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sup>31)</sup> 이 책에서 리시츠키는 1917년 혁명 이후 건축이 새로운 사회질서 구축을 위해 어떻게 진전해왔는지 공동주거(housing communes) 등 개별 건축 프로젝트부터 도시계획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소개해나갔다. 고유섭이 서술한 맥락 그대로다. 그러나 주지하듯 1932년 봄 스탈린 체제하의 경색된 문화예술 정책으로 러시아의 전위적 건축은 실상 끝나게 됐으니,<sup>32)</sup> 이 나라의

신흥건축에 대한 그의 인식은 현실과 시차를 보였다고 하겠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바는 고유섭이 르코르뷔지에 류의 서구 모델을 개인적이고 낭만적이라 배척하고, 양극적 경향의 하나로 간주했던 소련주의로의 입장을 2년 전보다 훨씬 명확히 표출했다는 사실이다.



그림 3. 高裕燮, 「露西亞의 建築」, 『新興』(1931.12)

#### 4. 고유섭이 인식한 ‘현대 신흥건축’

지금까지 고유섭의 「신흥예술 첨단건축」과 「로시아의 건축」을 글 순서에 따라 요약하고 해제했다. 이로써 우리는 그가 서양의 현대건축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흥예술 첨단건축」이 보여주듯, 그는 건축을 단편적이고 물리적인 현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교호계수’라 명명한 현대의 여러 이념적·기술적 기저 요인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려 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세 가지 대표적 현대건축 이론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1930년대 초 고유섭의 ‘현대 신흥건축’에 대한 인식은 그가 정리한 것만큼 체계적이고, 종합적이며, 구체적이기까지 하다고 간주할만하다. 하지만 이런 예단에 앞서 그가 글을 작성하며 의존한 참고문헌과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만이 현대건축에 대한 그의 인식과 수용 정도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신흥예술 첨단건축」의 본론을 위한 준거로 언급된 이타가키의 『新しき藝術の獲得』을 중심으로 참고문헌을 검토하고, 그것이 드러내는 한계를 지적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한계점 위에서 고유섭의 현대건축 인식

단언하는데, 첫 5개년계획(1928~32)으로부터 그런 변화가 시작됐다고 본다. Eric Dluhosch, ‘Translator’s Introduction’, in Lissitzky, 1970, pp. 22-23.

30) 유럽 근대건축운동에서의 ‘분리파(Secession)’로는 19세기 말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예술가-건축가 그룹이 대표적이지만, 독일 등의 여러 도시에도 분리파의 움직임이 있었다. 홍윤식(1937)은 네덜란드의 베를라헤를 분리파의 대표자 중 하나로 거론하기도 했는데, 고유섭이 이를 뜻한 것인지는 미지수다. 홍윤식, 「근대건축예술사상의 동향」, 『조광』, 1937.9, 340-357쪽. 개신교 역사에서의 네덜란드 분리파와 혼동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다.

31) El Lissitzky, *Rußland: Die Rekonstruktion der Architektur in der Sowjetunion*, Vienna, Anton Schroll, 1930. 이 책의 일역본이 있었는지는 불확실하나 그가 어떤 식으로든 그 내용을 접했음은 분명하다. 이 책의 2판(*Rußland: Architektur für eine Weltrevolution*, 1965)은 제목이 일부 바뀌었고, 영역본 및 일역본 등으로 출판됐다. El Lissitzky, *Russia: An Architecture for World Revolution*, Cambridge MA, MIT Press, 1970; 엘·리시츠키 (阿部公正譯), 『革命と建築』, 東京, 彰國社, 1983.

32) 앞의 책 영역본 서문은 “러시아 근대건축의 공식 사망일”을 소련 공산당이 ‘문화예술단체 재조직’을 발표한 1932년 4월 23일이라



과 두 논고의 의미와 시사점을 독해하고자 한다.

#### 4-1. 지식의 출처와 한계점 비판

고유섭이 「신흥예술 첨단건축」에 제시한 참고문헌 목록은 자기 지식의 출처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글의 신빙성을 높이고, 추가적 논의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뜻 깊다.<sup>33)</sup> 그리고 더 나아가 당대 지식의 수용 경로 및 방식을 생생히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 참고서 일곱 종은 그가 일본의 잡지와 단행본을 통해 최신 건축에 대한 정보를 얻었으리라는 예상 가능한 사실을 확인해 주며, 고유섭 정도의 엘리트에게는 이런 문헌을 접하는 데 시차가 크지 않았음도 새롭게 부각시켜준다.<sup>34)</sup> 물론 「로시아의 건축」이 그렇지 않은 면도 보여줬지만 말이다. 한편, 『朝鮮と建築』 같은 문헌이 언급되지 않은 점은 조선 내 건축계의 정보가 당시 그의 지식 습득에 필수적이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목록을 고찰컨대, 이 가운데서 핵심은 역시 프리체의 『예술사회학』과 이타가키의 『新しき藝術の獲得』이다. 고유섭 스스로가 ‘현대’의 개념 및 현대건축 전반의 서술을 위해 각각을 의존했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와는 별개로 이타가키의 저서 세 권 모두는 다수의 도판으로 현대건축의 시각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여타의 문헌은 대개가 배경으로서의 보조적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 『思想』 1930년 4월호는 ‘예술특집호’여서 추가적 의미가 있긴 하지만,<sup>35)</sup> 이타가키 저서의 여러 글들이 원래 『思想』 및 『新興藝術』에 출판됐던 것임은 인지할 필요가 있다.<sup>36)</sup> 그런데 문제는 본론 서술에 있어서의 『新しき藝術の獲得』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신흥예술 첨단건축」의 본론은 이 저서의 일부를 거의 그대로 번역한

33) 그의 참고문헌 제시는 지금의 논문작성법과 유사해 보이는데, 지식인의 윤리적 책무도 ‘일정 정도’ 감안했으리라 생각된다.

34) 『思想』 ‘금년’ 4월호는 ‘1930년’ 4월호(예술특집호)이니 이 글은 그해 말 작성된 것인데, 같은 해 9월의 『藝術と藝術家』를 참고서에 올린 것을 생각하면 시차의 정도가 파악된다. 주24 참조.

35) 여기에는 이타가키의 글 「寺院より工場へ」가 첫 꼭지로 실렸고, 서양에서 출판된 미술·연극·영화·건축에 관한 최신 문헌이 해설됐는데, 건축 분야는 20여종에 이를 정도로 폭넓게 다루었다. 또한 러시아의 ‘예술이론’ 단행본이 별도로 10권 소개됐는데, 프리체의 『예술사회학』도 (먼저 출판된 『서구문학개론』과 함께) 빠지지 않았다.

36) 『機械と藝術との交流』의 글 다섯 편 중 네 편이 『思想』과 『新興藝術』에 (각각 두 편씩) 실렸던 것이고, 『新しき藝術の獲得』의 글 17편 중에서는 두 편이 두 잡지에 (각각 한 편씩) 출판됐던 것이다. 『新興藝術』는 1929년 10월부터 이듬해 말까지 8회 간행됐는데, 이타가키는 건축가 사카쿠라 준조 등과 편집에 참여했다. 한편, 고유섭이 「신흥예술 첨단건축」 서론에서 신흥예술의 여러 유형을 나열한 것에도 이타가키에게 진 빛이 보인다. 이타가키는 두 책에서 베르트 프 영화론 등 여타 아방가르드 예술도 논한다.

것에 다름 아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자의 본론①과 본론②가 각각 후자에 수록된 「現代建築の史的特質」(87-99쪽)과 「三つの建築理想論」(173-185쪽) 챕터의 핵심 부분과 문장 대 문장으로 일치한다. 이 상황을 재정리해서 더 정확히 종합하면 이렇다: “현대건축의 이론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된 「신흥예술 첨단건축」의 본론은 큰 틀에서 「三つの建築理想論」을 그대로 가져오되 그 도입부의 자세한 논의는 「現代建築の史的特質」에서 따온 것이다. 고유섭 스스로가 「신흥예술 첨단건축」의 본론에서 “전술한 4개의 교호계수와 같이 『새로운藝術의獲得』에 준거해 서술”하겠다고 밝혔지만, 참고문헌에 대한 거의 그대로의 번역은 의외다. 서론에서 “자신의 복습을 위하여” 글을 쓴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고 해도 그렇다. 이 글의 중대한 한계일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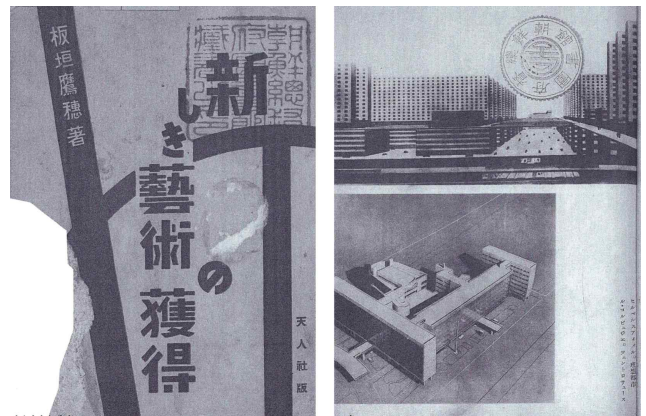


그림 4. 板垣鷹穂, 『新しき藝術の獲得』(1930): 표지 및 도판 ‘힐버자이머, 이상도시’와 ‘르코르뷔지에, 센트로소슈즈’

1930년 5월 출간된 이타가키의 『新しき藝術の獲得』은 지난 1년간의 각종 기고문과 강연원고를 모은 책인데, 「現代建築の史的特質」과 「三つの建築理想論」은 각각 『建築紀元』(1929.10)과 『中央公論』(1930.1)에 실렸었다. 이타가키는 미술사가이자 미술평론가로 먼저 알려졌지만, 30대 중반이던 1929~30년 건축에 관해 글을 쓴 일본의 대표적 1세대 건축평론가이기도 하다.<sup>37)</sup> 그는 당시 예술의 특징을 ‘기계명명’이라는 시대정신의 발현으로 봤고, 건축이야말로 그런 시대정신이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난 예술이라 생각했다. 이 같은 인식은 ‘합리주의’와 ‘합목적성’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표출됐는데, 그로피우스를 최고로 평가하고 르코르뷔지에에 대해서는 비판적 견해를 보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고유섭이

37) 이타가키의 건축론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시오. 藤岡洋保·三村賢太郎, 「建築評論家 板垣鷹穂の建築観」, 『日本建築學會計書系論文報告集』 394号 (1988), 62-70. 미술사가, 평론가 등으로서의 이타가키를 다각도로 조명한 문헌으로는 다음을 보시오. 五十殿利治(編), 『板垣鷹穂: クラシックとモダン』, 東京, 森話社, 2010.



전폭 의존한 두 글에도 이런 입장이 명백하다. 「現代建築の史的特質」에서 이타가키는 건축양식의 결정 인자를 '유물론적'으로 파악한 켈퍼의 경향과 이를 부정하며 '예술의욕'을 내세웠던 리글의 '정신사적 역사론'이 현대 건축에서도 반복됨을 전제한 뒤, "현대건축의 기초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로 고유섭이 '교호계수'라는 말로 소개한 네 가지 인자를 서술했다.<sup>38)</sup> (첫 두 인자인 정신적 '합리주의'와 물질적 '자본주의'는 리글과 켈퍼에 상응하는 켈페데, '자본주의 팽창기'를 주도하는 '기계문명'이 현대건축에 '양식상의 혁신'을 낳는다는 줄거리다.) 즉, 이 부분을 고유섭이 「신흥예술 첨단건축」의 본문①로 가져온 것이다. (단, 네 요소에 대한 서술 중 셋째와 넷째의 마지막 문장은 고유섭에게서 배제됐다.) 한편, 이타가키는 「現代建築の史的特質」의 내용을 요약해 '현대건축사상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三つの建築理想論」의 도입부에 차용한 후, 르코르뷔지에의 '건축기계론', 그로피우스의 '국제건축론', 힐버자이머의 '도시계획론'을 차례로 서술했다. 이를 번역한 것이 고유섭의 본문②다. (여기서는 빠진 문장이 더 많이 발견되는데, 르코르뷔지에 파트가 두드러지고 힐버자이머 파트는 미미하다.)

결국 고유섭의 현대건축 인식의 상당 부분은 자신의 것이 아닌 이타가키의 것이라 하겠으니, 앞서도 말했듯 고유섭 논고의 중대한 한계다. (이타가키의 건축관 자체에 대한 평가는 별개로 하자.) 다시 말해, 자기 공부를 위해 참고문헌을 그대로 번역해 정리한 글이 더 명확한 안내 없이 일간지에 출판된 것은,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한계일 것이요, 그리고는 한 세기 전 근대적 학문 활동 초창기의 시대적 한계일 것이다. 그러나 이를 따지는 일은 본고의 범위를 벗어난다. 여기서는 고유섭의 현대건축 지식의 출처를 밝히고 그것이 보인 한계를 비판적으로 직시하는 것과, 그 한계점 위에서도 거둘 수 있는 그의 현대건축 인식을 독해하는 것에 의미를 둔다.<sup>39)</sup>

#### 4-2. 고유섭의 현대건축 인식에 대한 독해

이번 장 첫머리에 적었듯, 고유섭은 '현대 신흥건축'을 상당히 체계적으로 정리해냈다. 까닭은 이타가키라

는 원숙한 평론가의 글을 고스란히 번역했던 데 있었다. 그러나 바로 이 때문에, 고유섭이 이타가키를 옮기며 공부한 대로 현대건축을 이해했을 것임은 자명하다. 게다가 「신흥예술 첨단건축」의 서론과 결론, 그리고 「로시아의 건축」도 자체로서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이타가키의 영향력이 여전히 감지되지만 말이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인지한 상태에서, 고유섭의 현대건축 인식을 둘러싼 시사점을 몇 단계로 나눠 살펴보자.

첫째, 고유섭의 현대건축 인식은 '현대'의 개념 규정부터 시작하는데, 그 시대상은 그가 의존했던 프리체와 이타가키의 공통 접점 위에 서있다. 그가 「신흥예술 첨단건축」 서론에서 '현대'를 프리체의 『예술사회학』을 따라 '공업자본주의 시대'라 규정한 것은 이미 서술한 바다. 프리체는 마르크스주의 예술학을 최초로 체계화한 이론가로 알려졌었는데,<sup>40)</sup> 그가 이 책 마지막 장인 「工業資本主義の藝術」에서 "공업자본주의의 출현과 동시에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아주 특수한 사회형태가 인류 역사에 도래했다"고 말한 바를 고유섭이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바로 그 공업자본주의의 근간인 '기계주의'가 예술을 완전히 새로운 양식으로 변모시키며 '미학의 혁명'을 야기했다는 프리체의 논지다(281-288쪽). 이런 논지가 이타가키의 핵심 주장, 즉 '자본주의 팽창기'를 주도하는 '기계문명'이 현대건축에 '양식상의 혁신'을 낳았다는 입장과 동일한 맥락이니, 고유섭은 상당히 일관적인 논리 하에서 두 저자를 참고했다고 하겠다. 이타가키가 '건축의 계급성'을 종종 언급했던 것도 그 일관성을 뒷받침한다.<sup>41)</sup>

둘째, 고유섭의 현대건축 인식은 프리체에 대한 의존이 예표하듯, 사회주의적 입장을 사상적 기반으로 한다. 그가 '현대'의 개념 규정에 이어, 현대건축 바탕의 양극적 문명인 '퇴폐적 계급'의 아메리카주의와 '건설적 계급'의 소련주의를 대비시키며 후자를 '타당적·이치적·종합적 문명'으로서 '내용과 합목적'의 미를 추구한다고 서술한 바가 이를 보여준다. 당대 많은 지식인들이 사회주의적 입장을 펼쳤던 것과 궤를 같이 할 텐데,<sup>42)</sup> 이

38) 즉, '교호계수'라는 말은 이타가키의 문구를 압축한 고유섭의 표현이다.

39) 김영나(2002)는 고유섭의 저작에 대해 "조선탐파의 연구를 제외하면 연구논문이라기보다는 신문이나 문예지에 실린 試論의 성격의 글들이 대부분"이라 냉정히 평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후대 미술계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연구의 쟁점이 되었던 것은 오히려 이러한 試論의인 글들이었다"며 거기서 여전히 의미를 찾으려 했었다. 정도는 다르나 그의 현대건축 논고도 한계 가운데서 의미를 제시한다.

40) 이 책 일역본의 역자 서문을 보시오(フリー체, 1930: 1-3쪽). 그의 '사회주의적 문예학'은 당대 한국문학에도 지대한 영향력이 있었다. 하정일(1993), 「프리체의 리얼리즘관과 30년대 후반의 리얼리즘론」, 『현대문학의 연구』 4권 (1993.3), 70-87쪽.

41) 프리체의 경우 『藝術社會學』의 「藝術に於ける階級闘争と階級同化」(261-280쪽), 이타가키의 경우는 예컨대 『思想』(1930.4)에 출판된 글로서 『新しき藝術の獲得』의 첫 장이 된 「寺院より工場へ」(33-61쪽)를 보시오. 프리체의 예술관이 후자에게 일부 공유됐을 것이다.

42) 일레로 「露西亞의 건축」이 실렸던 『新興』 7호(1932.12)의 첫 논

런 입장은 「로서아의 건축」에서 좀 더 명확히 표출됐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여기서 그가 국가 전체의 5개 년계획과 함께 진행되는 러시아 도시계획을 서구적 모델과는 달리 “확고한 경제적 근거에 입각한 탄력적, 귀납적 계획”이라 여기며, 이것이 “기술과 예술의 통합의 구체적 해결”을 목표로 한다고 높이 샀던 것이다.

셋째, 고유섭의 글에는 현대건축의 여러 사례가 언급됐는데, 그중 도시와 건축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유형에 대한 호감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로서아의 건축」이 보였듯, 세포 같은 건축 단위가 집합해 여러 시설을 공유하며 더 큰 건축과 도시를 이루고, 그 사이를 동선 및 교통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종합적 복합체’다. 또한 르코르뷔지에 류의 개인적 유희와 낭만에 따른 것이 아닌 “엄밀한 과학적 입각점에서” 계획되는 것인데, 사회주의적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타가키가 르코르뷔지에의 공상적 계획과 달리 “철저한 합리주의를 표방”했다며 높이 평가한 힐버자이머의 도시계획도 (사상적 기반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유사한 도시-건축-교통의 통합체를 선보였으니, 고유섭도 이타가키의 인식처럼 이를 선호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신홍예술 첨단건축」을 집필한 계기였던 「尖端을 짓는 藝術樣式」 연재물 중의 ‘럿쉬 시티’도 유사한 통합체였다는 사실 또한 흥미롭다. 하지만 당대의 개별적 현대 건축물에 대한 정교한 미학적 판단에까지 이르는 데 어려웠을 그이기에, 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입장에서 ‘종합적 복합체’로서의 도시건축에 대한 선호도를 표출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본다.

넷째, 고유섭의 현대건축 인식에는 부자연스런 맥락이나 다소간의 오해도 종종 눈에 띈다. 르코르뷔지에와 관련한 내용에서 가장 그렇다. 앞장에서도 적었듯 고유섭은 「신홍예술 첨단건축」 9장에서 르코르뷔지에에 대한 이타가키의 비판적 입장을 엿보이면서도 그를 신홍건축계의 리더로 칭송해마지않았다.

그가 現代 社會思想을 얼마나 自覺하였고 機械의 意義를 얼마만치 評得하였는가 함을 板垣 氏は 疑心하였지 마는 [...] 그가 現今 新興建築界 에 一木鐸임은 不誣할 事實이오, 妥當한 稱頌이라 하야도 誇讚이 아닐 줄 및

고인 「民族理論의 三形態」도 이를 보여준다. 저자인 신남철은 ‘민족 이론’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부르주아 이론, 사회민주주의 이론,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설명하며 마르크스주의를 가장 구체적이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것으로 간주해 옹호한다. 『新興』은 경제세대 범문학부 졸업생들이 창간한 잡지로 고유섭의 초기 글을 여럿 게재했는데, 7호만 보더라도 다양한 이념의 스펙트럼이 제시되는 가운데 사회주의적, 유물론적 입장의 글이 두드러졌다.

는다.

이타가키는 르코르뷔지에를 현대건축의 대표 이론가로 내세우며 거기서 합리주의를 읽지만, 레토릭이 농후한 그의 언설에 “현대의 사회사상에 대한 완전한 무자각”이 드러났다고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는데(179-180쪽), 고유섭이 위 인용문으로 르코르뷔지에에 대한 이타가키의 여러 비판 문구를 대체한 것이다. 그가 이타가키의 글을 거의 그대로 번역하면서도 일부를 주체적으로 교정했다면 일단은 긍정적이지만, 문제는 일관성이다. 힐버자이머의 도시계획론을 번역하면서도 르코르뷔지에의 ‘공상적 도시인’이 교통문제 해결과 무관하게 ‘기하학적 외형’에만 치중했다는 이타가키의 비판을 (실상 힐버자이머의 비판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이다. 복습을 겸해 글을 정리한 현대건축 초심자가 숙련된 건축평론가의 글쓰기를 따라가기에는 원천적 한계가 있다. 이타가키가 명명한 르코르뷔지에의 ‘건축기계론’을 단순히 ‘건축이론’으로 옮긴 것은 ‘기계문명’에 천착했던 이타가키의 의도를 십분 이해하지 못했던 (혹은 반영하지 않았던) 결과로 볼 수 있는데, 「로서아의 건축」에서 르코르뷔지에의 “주택은 살기위한 기계다”를 “건축은 살기위한 것이다”로 적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하겠다. 그러면서도 그의 현대건축에 대한 관점은 거의 전적으로 이타가키에 의존한 것이라 하겠으니,<sup>43)</sup> 유관 지식의 수용 경로가 여전히 한정적이고 간접적일 수밖에 없었던 식민지적 상황의 결과가 아닌가 싶다. 일본 자체만 보더라도 ‘라이트 파’니, ‘바우하우스 파’니, ‘코르뷔지에 파’니, 서로 다른 신흥건축 흐름을 따르는 다양한 갈래와 관점이 존재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sup>44)</sup>

다섯째, 앞의 둘째 항목 및 3장에 이미 제시했듯, 「신홍예술 첨단건축」과 「로서아의 건축」 사이에는 고유섭의 현대건축 인식에 일부 변화가 감지된다. 전자의 결론에서 신흥건축을 전폭 긍정했던 것과는 달리 후자에서는 르코르뷔지에 식의 서구적 건축 대신 러시아의 사회주의적 건축 모델만을 선택적으로 옹호했기 때문이다. 전자에서는 이타가키의 논지를 따르는 가운데 ‘현대 신흥건축’ 전반을 포괄해야 하는 입장이었다면, 후자에서는 짧은 글에 자기 논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상황

43) 본고가 다루는 두 글에 표출된 이타가키의 영향은 1933년의 「현대 세계미술의 귀추」(전집 8권 수록)로도 이어졌다. 이 글은 건축을 주제로 하지는 않지만 ‘순수주의’ 화가로서의 르코르뷔지에가 언급된다. 고유섭은 코르뷔지에의 회화가 너무 ‘주지적’이고 ‘장식도안적’이라 비판하며, 그가 “회화에서의 이 불명예를 건축에서 배가 보상을 받았[다]”고 평한다. 이타가키의 논조다.

44) 藤森照信, 『日本の近代建築(下)』, 東京, 岩波書店, 1996, 154쪽.

적 요인도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2년의 기간은 이 정도의 입장을 정리하는 데 짧지 않았다고 판단된다.<sup>45)</sup>

## 5. 결 론

이 연구는 한국 미술사학의 태두 고유섭이 1930년대 초에 출판한 「신흥예술 첨단건축」과 「로시아의 건축」에 주목했다. 주로 전통의 미술과 건축을 연구했던 그가 서양의 '현대 신흥건축'을 논했다는 것은 자체만으로도 눈길을 끄는데, 두 논고가 서양 근대건축운동을 국내에 한국어로 소개한 초기 사례라는 사실 또한 한국 현대건축사적 관점에서의 의의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고는 두 글이 실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고찰한 뒤, 거기 발견된 한계점 위에서 그의 현대건축 인식을 독해했다. 그 결과를 종합해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유섭은 「신흥예술 첨단건축」을 통해 당시의 현대건축에 대한 체계적 정리를 시도했고, 현대의 이념적·기술적 기저 요인을 바탕으로 르코르뷔지에, 그로피우스, 힐버자이머의 건축이론을 소개했다. 둘째, 고유섭이 여기 제시한 참고문헌 목록은 당시 지식 수용의 양상을 생생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참고문헌 고찰을 통해 발견한 사실, 즉 위 글의 본문 대부분이 이타가키의 『新しき藝術の獲得』에 수록된 내용을 거의 그대로 번역한 것이라 사실은 고유섭의 현대건축 논고가 가진 중대한 한계다. 셋째, 이 한계점에 대한 비판에 더해, 그의 현대건축 인식에서 유의미한 사항을 읽을 수 있다. 그가 '현대'를 '공업자본주의의 시대'로 규정함에 있어 프리체의 『예술사회학』을 인용한 것은 이타가키의 논지와 자연스럽게 연계됨과 동시에, 두 글에 표출된 '소련주의'에 대한 선호를 예표한다. 특히 「로시아의 건축」에 와서 르코르뷔지에 류의 건축을 배척하고 사회주의 이념의 '종합적 복합체'로서의 도시건축을 상찬하는 입장이 명확해 진 것과 맥이 닿는다. 르코르뷔지에에 대한 고유섭의 비판적 견해는 이타가키의 영향에 크게 기인했지만, 르코르뷔지에와 현대건축에 대한 다소 층분치 못한 이해도 종종 노출한다. 그러나 두 글 사이 2년의 시간을 거치며 현대건축에 대한 고유섭의 관점이 더 정리된 것은 긍정적이라 하겠다.

이 같이 1930년대 초 고유섭의 현대건축 논고 두 편을 독해하며 얻은 이해는 좀 더 넓은 지평에서 조망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우현학(又玄學)'이라 불리기도 하는 고유섭에 대한 연구의 측면인데, 그간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던 그의 현대건축론을 살핀 것은 그에 대한 시야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고유섭이 당시의 현대건축 전반을 일정 정도(그의 말에 빗대자면) "횡(공간적)으로 종(시간적)으로" 체계화해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식에 크고 작은 한계가 노출됨을 알 수 있었다. 1930년대 초는 연구자로 발을 댄 20대 청년 고유섭이 동서고금의 지식을 왕성히 섭취하던 학습기였음을 인지해야 한다. 한편, 본고가 고유섭의 현대건축 인식을 살피며 얻은 이해 가운데는, 그간 고유섭 연구의 관심사였던 내용과 교차하며 작으나마 재고를 요하는 것도 있다. 예컨대, 문명대(1977)는 고유섭의 사관이 '양식사'에서 '사회경제사'로 변화된 시점을 1933년 백남운의 『조선사회경제사』 출판을 계기로 한 1934~35년으로 봤는데,<sup>46)</sup> 본고는 1930년대 초두에도 이미 고유섭에게 소련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적, 즉 '사회경제사적' 관점이 뚜렷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권영필(1992)을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이 관심을 보인 19세기 독일(어권)의 '양식사'와 고유섭의 방법론은 건축사적 입장에서도 바라볼 만하다. 건축사에서의 '양식'은 미술사에서와 같은 뿌리를 가졌지만 20세기 들어 매우 다르게 실천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가 이타가키를 진지하게 읽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건축양식과 관련해 '예술의욕'의 리글보다 '유물론적' (이라고 간주됐던) 켈퍼에 더 가까워야 할 것만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듯하다.<sup>47)</sup> 이렇게 볼 때 미술사학과 건축사학이, 또 전통 분야와 현대 분야가 함께 소통하며 연구해야 할 자명한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본고가 얻은 이해를 위치시켜야 할 또 다른 지평은 역시 한국 현대건축사 연구의 방면이다. 고유섭의 현대건축 논고가 서양 근대건축운동을 한국어로 소개한 가장 이른 사례로 보인다는 사실은 계속 강조됐다. 「신흥예술 첨단건축」에 이어 같은 『동아일보』에 두 달 후

45) 한편, 시간적 범위를 확장해 1940년의 글 「현대미의 특성」(전집 8권 수록)을 보면 그의 인식에 더 큰 변화가 발견된다. 그는 여기서 건축을 포함한 현대예술의 특성, 즉 '현대미의 특성'을 '불안성'으로 보며 '무상성', '무사상성', '무체계성', '현대의 신비성'과 연계하는데, 1930년대 초의 현대건축 인식보다 훨씬 다양한 해석에 열려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 '예술'과 연계된 점은 2장에서 소개했던 그의 미학 전반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46) 근거는 「학난」일 것이다. 주13 참조. 한편, 문명대는 1930년대 후반 이 '사회경제사적 사관'이 다시 '정신사적 사관'으로 바뀌었다고 보지만(이는 초기에 거부했던 야나기를 수용한 것으로 비판됐다), 고유섭 사관의 기조는 '정신사적 사관'이라 강조한다. 주18 참조. 반면, 김영나(2002)는 그 바탕을 '양식사적 사관'으로 간주한다.

47) 고유섭이 리글의 '예술의욕'이나 빌헬름의 '양식' 등에 관심을 표명했음은 주지하는 바지만, 켈퍼에 대해서는 불명확해 보인다.

재될 건축가 박동진의 글을 필두로 1930년대에는 현대 건축과 관련된 조선 건축계의 글이 몇몇 뒤따른다.<sup>48)</sup> 현대건축의 역사를 단지 물리적으로 세워진 건물에 대한 것만이 아닌 현대의 건축을 인식하고 수용한 지식의 역사로도 간주한다면, 1930년대 초 고유섭의 두 논고는 한국 현대건축의 출발점에서 유의미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로서아의 건축」이 경성에 늘어가는 “갑판·선실 같은 건물”을 르코르뷔지에 식으로 치부하며 비판한 사실은 추가적 논의를 필요로 한다. 그가 조선의 건축계와 실제적 교류를 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의 글은 당시 조선 건축계 및 지식인 사회 저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그의 글과 그에 뒤따른 실무 건축가들의 글과의 비교, 그의 관점으로 본 경성건축 비평 등, 고유섭의 논고를 한국 현대건축사의 맥락에 견줄 연구는 이후의 과제로 남긴다.

#### 참고문헌

1. 고유섭, 「新興藝術, 特히 尖端을 가는 建築에 對하여 (1)~(4)」, 『東亞日報』, 1931.1.24~28.
2. 고유섭, 「露西亞의 建築」, 『新興』 7호 (1932.12), 57쪽.
3. 고유섭, 『한국건축미술사 초고』, 서울, 대원사, 1999.
4. 우현 고유섭 전집 발간위원회 (편), 『우현 고유섭 전집 1~10』, 파주, 열화당, 2010~2013. (각권 제목은 주8 참조)
5. 윤장섭, 『한국건축사』, 서울, 동명사, 1973.
6. 문명대, 「우현 고유섭의 미술사학」, 『미술과 생활』 (1977.7), 78-87쪽.
7. 문명대, 「1930년대의 미술학 진흥운동」, 『민족문화연구』 12호 (1977.12), 147-168쪽.
8. 김영애, 「고유섭의 생애와 학문세계」, 『미술사학연구』 190-191호 (1991), 130-131쪽.
9. 김문환, 「한국근대미술학의 전사」, 『한국학연구』 4호 (1991), 341-382쪽.
10. 최진희, 「고유섭의 한국건축미술학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1992.
11. 권영필, 「우현 고유섭의 미학」, 『미술사학연구』 196호 (1992), 75-83쪽.
12. 김영나, 「한국미술사의 태두 고유섭: 그의 역할과 위치」, 『미술사학연구』 16호 (2002), 503-517쪽.
13. 이강근, 「우현 고유섭의 ‘조선미술사초고’에 대한 연구」, 『미술사학연구』 249호 (2006), 207-235쪽.
15. 동아일보, 「尖端을 잇는 藝術樣式 (1)~(6)」, 『東亞日報』,

- 1930.9.2~7.
16. 신남철, 「民族理論의 三形態」, 『新興』 7호 (1932.12), 2-14쪽.
17. 하정일, 「프리체의 리얼리즘관과 30년대 후반의 리얼리즘론」, 『현대문학의 연구』 4권 (1993.3), 70-87쪽.
18. 板垣鷹徳, 『國民文化繁榮期の歐洲畫界』, 東京, 藝文書院, 1929.
19. 板垣鷹徳, 『機械と藝術との交流』, 東京, 岩波書店, 1929.
20. 板垣鷹徳, 『新しき藝術の獲得』, 東京, 天人社, 1930.
21. ヴラヂーミル・フリーチェ (昇曙夢 譯), 『藝術社會學』, 東京, 新潮社, 1930.
22. 伊那信男 外, 「文獻と解雪: 美術・演劇・映畫・建築に關する」, 『思想』 95号 (1930.4), 88-106.
23. 岡澤秀虎, 「文獻と解雪: 露西亞に於ける新しい藝術理論に關する」, 『思想』 95号 (1930.4), 107-112.
24. 藤岡洋保·三村賢太郎, 「‘建築評論家’ 板垣鷹徳の建築觀」, 『日本建築學會計畫系論文 報告集』 394号 (1988), 62-70.
25. 尹仁石, 「韓國における近代建築の受容及び發展過程に關する研究」, 東京大學 博士論文, 1990.
26. 藤森照信, 『日本の近代建築』, 東京, 岩波書店, 1996.
27. 禹東善, 「韓國の近代における建築觀の變遷に關する研究」, 東京大學 博士論文, 1999.
28. 五十殿利治 (編), 『板垣鷹徳: クラシックとモダン』, 東京, 森話社, 2010.
29. Walter Gropius, *Internationale Architektur (Bauhausbücher 1)*, München, Langen, 1925.
30. Ludwig Hilberseimer, *Grosstadtbauten*, Hanover, Apos, 1925.
31. Ludwig Hilberseimer, *Grosstadtarchitektur*, Stuttgart, Hoffmann, 1927.
32. El Lissitzky, *Russia: An Architecture for World Revolution*, Cambridge MA, MIT Press, 1970.
33. Jean-Louis Cohen, *Le Corbusier and the Mystique of the USS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34. Thomas S. Hines, *Richard Neutra and the Search for Modern Architectur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4.
35. Richard Anderson (ed), *Ludwig Hiberseimer: Metropolisarchitecture and Selected Essays*, New York, GSAPP BOOKS, 2012.

접수(2022. 10. 9)

게재확정(2022. 11. 24)

48) 주4 참조. 박동진의 글 외에도 박길룡이 『동아일보』에 4회 연재한 「현대와 건축」(1936.7.29~8.1), 홍윤식이 『조광』에 발표한 「근대건축예술사상의 동향」(1937.9) 등을 꼽을 수 있다.